

# 불꽃 튀는 전기차 大電



왼쪽부터 기아 'EV6', 현대차 '아이오닉 5', 메르세데스-벤츠 'EQC'.

1~4월 수입 브랜드 4351대 판매  
테슬라 주춤...타사 451% 신장  
현대차 아이오닉 5 등  
국내 업체도 1만3060대 판매  
7월 기아 EV6 출시 앞뒤

올해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주춤하는 사이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 판매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가 출시한 전기차 신규 모델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출시가 시작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에 이어 오는 7월 기아도 EV6를 출시하는 등 국내 브랜드도 첫 전용 전기차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전기차 대결이 예상된다.

24일 한국수입차협회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차는 435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64대보다 2.0% 증가했다.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 판매가 2%로 소폭 증가

한 것은 테슬라의 판매 감소의 영향이 컸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올해부터 지난해까지 330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75대가 팔린 것에 반해 18.8%나 감소했다.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들은 총 1043대가 판매돼 전년 189대보다 무려 451.9%나 증가하는 등 5배 이상 올랐다. 9000만원 이상 고가의 전기차 모델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고가의 수입 전기차의 판매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메르세데스-벤츠가 선보인 순수전기차 모델 'EQC'의 경우 242대가 판매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23대)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EQC는 올해 1월 12대에 이어 2월 13대 등 판매가 저조했지만, 3월에 접어들면서 80대가 팔렸고,

4월엔 137대가 판매되는 등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1월 컴팩트 순수전기차 'EQA'를 출시한 데 이어 6월 '더 뉴 EQC 400 4MATIC' 프리미엄 모델을 국내에 출시했다. 또 최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와 컴팩트 모델인 '더 뉴 EQB'를 공개하고, 하반기 '더 뉴 EQE'까지 추가 출시하는 등 전기차 라인업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국내에 출시된 포르쉐의 순수전기차 '타이칸 4S'도 올해 총 493대가 판매됐고, 아우디 'e-트론 55 콤팩트' (70대)와 BMW 'i3' (60대), 푸조 'e-2008' (94대) 등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체의 전기차 역시 판매량이 늘고 있다. 국산 전기차는 지난해까지 총 1만3060대가 판매되면서 전년 1만161대보다 28.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사전계약 4만3000대를 기록한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지난달부터 출고가 시작됐고, 오는 7월 기아도 사전계약 2만1000대를 기록한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출시한다.

특히 올 하반기 제네시스 역시 G80 전동화 모델과 JW(코드명), 한국GM의 볼트 파생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볼트 EUV, 쌍용차의 코란도 e-모션 등도 출시가 예정돼 있는 등 수입차와 국산차를 비롯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올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비대면 소비'에 트럭 질주 1~4월 현대차 판매 31.2% 늘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가운데 택배 등 물류 운송에 사용되는 중·대형 트럭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현대차 중·대형 트럭 판매는 8730대로 작년 동기 대비 31.2% 증가했다.

차종별로 대형인 엑시언트는 2068대, 준대형 파비스는 870대 판매됐다. 중형인 메가트럭과 마이티는 각각 2048대와 3744대 팔렸다.

2019년 말 출시된 파비스의 올해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3533대)의 2.5배에 달한다. 5.5~13.5t을 실을 수 있는 파비스 수요의 대부분은 택배 등 중장거리 물류 운송용이다.

마이티(33.6%)와 엑시언트(29.1%), 메가트럭(7.9%) 등 다른 중·대형 트럭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물류량이 늘어나 파비스를 비롯한 중·대형 트럭의 판매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현대차·기아 발명가 모였다

### '발명의 날' 포상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최근 연구개발(R&D) 인재들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특허 개발자들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발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11번째를 맞는 '발명의 날'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표적인 R&D 지식 경연 행사 중 하나다. 현대차와 기아는 연구개발 부문의 신기술 및 양산 차량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별해 특허 출원 및 포상을 시행해왔다. 또 여기서 발굴된 각종 혁신 기술들은 현대차·기아의 차량 상품성 향상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현대차·기아에서 특허로 출원한 3100여 건의 사내 발명 아이디어 중 자율주

행과 차세대 배터리, 전동화 파워트레인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총 19건의 특허 제안이 1차 후보에 올랐다. 이 중 상위 8건을 우수 발명으로 최종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심 자율주행차용 지도 오차를 보정하는 측위 보조장치(김남균 책임연구원)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틸트로터 항공 디자인(이근석 책임연구원) ▲배터리 표준화 모듈 구조(오유리 연구원) ▲열전 소자 개발(이민재 책임연구원) ▲고온 냉각수 활용 히트펌프 시스템(김연호 책임연구원) ▲공조 덕트를 포함한 무빙 콘솔(안계영 책임연구원) ▲병렬형 셀 최적 차량생산 시스템(연석재 책임매니저)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전원 연결 구조(김주한 파트장) 등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기아가 개최한 '2021 발명의 날' 행사에서 우수 특허·발명으로 최종 선정된 수상자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예비 발명가 모여라

### 현대차 '미래 자동차 학교' 2학기 참여학교 모집

현대자동차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특화 진로 교육 및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인 '현대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 자동차 학교'의 2학기 참여학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 자동차 학교'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대차가 2016년 민간기업 최초로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자동차 기술을 이해하고 산업 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된다.

현대차는 2016년 120개, 2017년 200개, 2018년 240개, 2019년 300개, 2020년 300개 중학교에서 '미래 자동차 학교'를 운영하며 자동차의 공학적 원리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수업과 모빌리티 관련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또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확대 운영하고,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는 지난해 20개교에서 올해 100개교로 확장하기로 했다.

수업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도시에 활력을 더하다' ▲'모빌리티, 나의 가치를 이룬다' ▲'모빌리티, 모든 경계를 허물다'를 주제로 총 16차시에 걸쳐 진행되는 중등 정규 프로그램, 3차시로 구성된 중등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4~6학년층을 대상으로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기, 수소 자동차의 특징과 원리'



▲'나만의 클레이 모델 만들기' 등을 주제로 총 3차시에 걸쳐 체험학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학교에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디지털로 전환된 교육여건에 적합한 온라인 교사 연수와 온라인 수업 가이드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는 '미래 자동차 학교' 중등 교사 홈페이지, 초등학교는 '미래 자동차 학교' 초등 교사 홈페이지에서 이일부터 오는 6월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